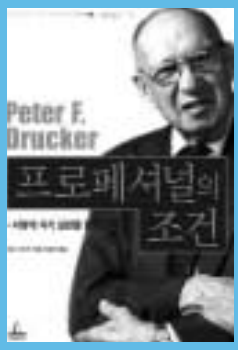
올 여름, 이 책을 펴면 성공이 보인다

허연 기자가 추천한 경제필독서 10권!

성공은 생각의 크기로 결정이 됩니다. 생각은 지식에서 나옵니다. 책을 통해 많은 지식을 쌓다보면 남보다 앞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성공은 한발짝 앞으로 다가설 것입니다. 그럼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요. 독서는 믿음직한 나침반과 지도가 있다면 더욱 안전하게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여행과 비슷합니다. 여기 매일경제 허연 출판전문 기자가 추천한 경제필독서 10권을 소개합니다. 올 여름 이 10권의 책을 안내자 겸 길동무로 삼아 성공에 이르는 짜릿한 여행을 준비하세요. 이제, 책을 넘기는 결정은 당신에게 달려있습니다.

《프로페셔널의 조건》

피터 드러커 씀⊙이재규 옮김⊙청림출판사 펴냄



현대 경영학의 대부이자 사회학의 거두로 일컬어지고 있는 피터 드러커 교수가 자신의 모든 사상과 비전을 한 눈에 훑어볼 수 있도록 구성한 《피터 드러커의 21세기 비전》 전 3권 중 첫 번째 책이다. 이 책에서 우리는 피터 드러커 그 자신을 21세기에 가장 성공한 지식 근로자로 만들어 준 일곱 가지 경험과 교훈들을 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교훈들을 통해 우리 각자가 속한 조직에서 어떻게 일해야 하고, 스스로는 어떻게 개발하고 관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컨셉 CONCEPT》

HR연구소 씀⊙양영철 옮김⊙거름 펴냄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은 상품이 아니라 컨셉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컨셉으로 결정된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나만의, 우리 회사만의 독특한 컨셉이 없으면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 컨셉이란 차별성과 우위성을 나타내는 특성을 함축하는 말이다. 이러한 컨셉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 책은 마치 수학 방정식을 푸는 것처럼 일정한 공식에 따라 누구나 쉽게 컨셉을 만들 수 있게 해 주는 최초의 책이다. 풍부한 사례들을 읽으면서 따라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결정적인 한 줄의 컨셉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짐 콜린스 씀⊙이무열 옮김⊙김영사 펴냄

좋은 기업은 많지만, 위대한 기업은 많지 않다. 괜찮은 기업에 머무를 것인가, 위대한 기업으로 도약할 것인가? 1994년 콜린스와 그의 연구팀이 2000페이지의 인터뷰, 6000건의 논문조사, 3.8억 바이트의 정밀한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7년 후 발견한 위대한 기업으로 도약하는 핵심요인들과 경영전략과 실천의 모든 영역에 새로운 빛을 던져줄 가치있는 교훈들을 집대성하여 이 책을 펴냈다. 연구를 통해 주요 개념들은 우리나라 수많은 좋은 기업들을 위대한 기업으로 끌어올리는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경영학의 진리체계》

윤석철 씀⊙경문사 펴냄

실용서, 처세술 관련 서적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이 책은 인문학적 경영철학서로 깊은 고민을 던져준다. 저자는 경영과 리더십의 참된 의미는 자기 혼자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닌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삶을 위한 상생의 진지한 노력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지구상 생존경쟁의 역사 5억 3000만년을 거치며 가장 번성한 종이 된 곤충과 포유류의 지혜를 통해 기업의 길을 제시한다. 물리학, 전기공학, 독문학, 경영학 등 문·이과를 뛰어넘어 4개의 전공을 섭렵한 저자의 학문적 너비와 깊이가 독자에게 매력을 주는 경영철학서이다.

《마켓 리더의 조건》

제럴드 텔리스 외 씀⊙최종옥 옮김⊙시아출판사 펴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가 선정한 2001년 최고의 책. 이 책은 시장 개척기업이 마켓리더가 된다는 통념을 뒤집은 혁명적인 연구를 보여주며,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최대의 수익 창출을 위한 최상의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수많은 사례를 통해 일반상식과는 반대로 시장을 개척하고 제일 먼저 진입한다고 해서 시장지배력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다. 시장 개척자로서 갖는 장점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인 마켓 리더로 남기 위해서는 비전과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쇼핑의 과학》

파코 언더힐 씀⊙신현승 옮김⊙세종서적 펴냄

왜 유독 저 곳에만 고객이 몰릴까. 이 책은 그간 우리가 알고 싶었던 '앞서가는 매장에 숨겨진 성공의 법칙'을 알려준다. 저자는 쇼핑에도, 우리들 삶의 다른 것들처럼, 법칙과 과학이 있다고 말한다. 일단 쇼핑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행위가 아니라 오감을 통해 적절한 경험을 맛보는 일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더 이상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치밀한 관찰과 합리적 분석을 통해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추구하라고 조언한다. 그리고 성공하는 매장이 되고 싶다면 쇼핑에 대한 낡은 관념' 부터 해소하라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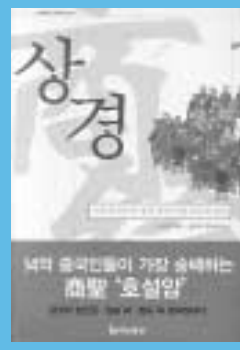
《클릭 이브속으로》

페이스 팝콘 씀⊙김영신 옮김⊙21세기북스 펴냄

이 책은 겉으로 보기에는 여성에 대한 마케팅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행간에는 여성에 의한 '소리 없는 혁명'이 불러오는 중대한 변화와 이것이 개인과 기업에 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비즈니스 전반에 흐르는 '여성적 트렌드'를 포착하여, 기업 전략의 새로운 방향을 저자의 수많은 경험과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눈앞에 생생히 보여준다. 저자가 제시하는 여성에 대한 8가지 트렌드를 따라가다 보면 기업들은 어느새 여성의 눈으로 세계를 보게 될 것이다. 나아가 여성적 트렌드에서 미래의 비전을 보게 될 것이다.

《상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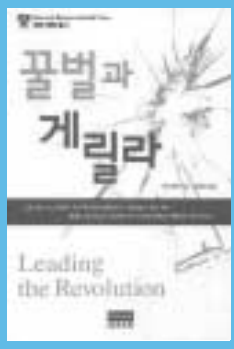
스유엔 씀⊙김태성 외 옮김⊙더난출판서 펴냄



청나라 말, 홍정상인이라 불리었던 거상 호설암을 중심으로 펼쳐진 상술과 상도를 현대적 의미로 집대성한 경영전략서이다. 또한 개혁 개방 이후 불가사의한 속도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기업과 기업인들의 비즈니스 전략도 담고 있다. '호설암 상술'을 적용하여 성공을 거둔 중국 기업인들의 실천 사례는 그들에 대한 구체적인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비즈니스의 안목을 높이는 역할을 해준다. 이 책은 중국과 합작사업을 계획하거나 추진중인 기업인들이 중국의 기업 의식과 상술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책이다.

《꿀벌과 게릴라》

게리 해멀 씀⊙이동현 옮김⊙세종서적 펴냄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요즘같은 혁명적 변화의 시기에는 시키는 대로 묵묵히 일만 하다 초개처럼 죽어가는 꿀벌같은 정규군이 아니라, 독특한 상상력과 도전정신, 하극상의 마인드로 무장한 게릴라가 필요하다. 이 책은 개인과 회사에게 창의적 혁신을 촉구하는 경영전략서이다. 저자는 런던경영대학원 객원교수이자 경영 전략가인 게리 해멀. 불연속적이고 비선형적인 변화가 지배하는 21세기에서 성실한 꿀벌의 능력은 도태되고 창의적이고 주변적인 게릴라가 성공할 것이라며, 그에 걸맞은 혁신의 행동원칙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FIRST, BREAK ALL THE RULES》

마커스 버킹험 외 씀⊙한근태 옮김⊙시대의창 펴냄

먼저 모든 규칙을 깨뜨리며 사람이 저마다 달리 보여주는 혁명적 리더십에 관한 경영전략서이다. 특히 '내 속에 숨은 잠재력'인 재능의 발견과 계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 책은 얼마나 많은 유능한 인재들이 업적의 대가로 '승진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가 그 탁월함을 잃고 어떻게 추락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저자들은 재능이란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반복적인 느낌, 생각, 행동'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면서 타고난 강점에 의지하지 않고는 전문가로서 성과를 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인문학과 정신적 파도타기를 즐기자!

최재봉 기자가 추천한 인문교양서 10권!

흔히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선선한 계절에 책을 읽으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사실은 가을에 책이 가장 안팔린 답니다. 진정한 독서의 계절은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그리고 독서에 대한 필요성을 느낄 때인 듯합니다. 그동안 일에 조금 지친 당신에게 우리 인생의 의미와 깊이를 담은 책 10권을 소개합니다. 한겨레신문 최재봉 학술전문 기자가 추천하는 올여름 보약이 되는 책 베스트 10. 올 여름에는 완전한 은둔자가 되어 아름다운 책에 푹 빠져보세요. 책 갈피에서 느껴지는 인문학적 향기가 무더위를 저만치 물러나게 할 것입니다.

《우연히 만나 새로 사귄 풍경들》

이지누 사진 · 글◉샘터 펴냄

변산의 바다와 갯벌, 다투듯 솟아있는 봉우리들과 울창한 소나무들, 마음이 쉬어가는 암자와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습을 섬세하고 아름답게 그려낸 여행 에세이. 다큐멘터리 작가 이지누의 깊이 있는 고독과 명쾌한 투시가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풍경의 수사학을 보여준다. 책은 크게 변산 일대의 풍경과 조곤히 사귀는 저자의 내면 기록에 해당하는 전반부와 저자보다 앞서 풍경과 교감을 나누었던 선인들의 발자취를 반추하는 후반부로 나뉘어 있다. 진정성이 담긴 글과 사진이 주는 향취가 오래도록 곱씹어지는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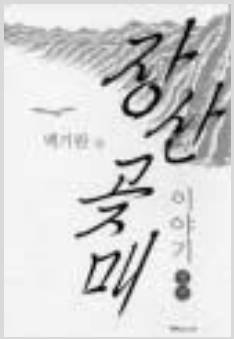
《정약용과 그의 형제들 1, 2》

이덕일 씀◉김영사 펴냄

《송시열과 그들의 나라》, 《사도세자의 고백》를 쓴 저자 이덕일의 조선후기 인물사 3부작의 완결편. 개혁과 수구의 대립이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조선 후기에 조선의 위대한 지성인 다산 정약용과 그의 형제들의 삶과 사상, 개혁의 시도와 좌절이 펼쳐진다. 실학과 선진 과학문물, 인간 중심의 새로운 사상으로 침몰해 가는 조선을 구명하려 했던 정약용 형제들의 삶이 치열하게 다가온다. 정약용 형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 뿐 아니라 역사를 통해 현재를 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읽어볼만한 책이다.

《장산곶매 이야기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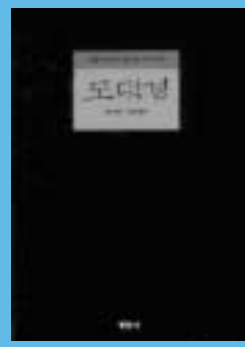
백기완 씀◉노나메기 펴냄



재야투사로 널리 알려져 있는 백기완 씨는 또한 빼어난 이야기꾼이자 개성있는 문필가이기도 하다. 배고프다고 조르는 어린 백기완에게 그의 어머니가 밥 대신 들려준 이야기가 2권짜리 단행본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고난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옳음과 바름을 위해 제 한몸을 던지는 장산곶매의 힘찬 기상이 담겨있다. 이 책의 또다른 미덕은 백씨 특유의 풍요로운 토박이말들에 있다. 암난이(처녀), 몰개(파도), 넉넉수(행운)처럼 부르기에도 아름다운 어휘들이 이 전통 서사의 속살을 한껏 찌운다.

《도덕경》

노자 씀◉오강남 풀이◉현암사 펴냄



한글세대가 이해하기 쉽게 풀이한 도덕경 주해서이다. 《도덕경》은 원래 한문으로 5000자 남짓, 200자로 25매 분량밖에 안되지만, 중국 고전 가운데서 주석서가 많기로 유명한 책이다. 모두 81장으로 구성된 노자가 남긴 이 책은 우리에게 교훈과 통찰을 주기도 하고 독백과 명상을 제공하기도 하며 해학과 역설의 재치도 보여준다. 저자가 한문 원문 없이 우리말만으로도 문맥이 통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번역했기 때문에 각 장이 한 편 한 편의 시나 짤막한 잠언을 읽는 듯한 느낌을 준다.

《세계사 편력 1, 2, 3》

자와할랄 네루 씀◉일빛 펴냄

인도의 독립운동가이자 초대 총리를 지낸 네루가 1930년부터 3년동안 옥중생활을 하면서 13세 딸인 인디라 간디에게 보낸 총 196회분의 편지글을 엮은 것으로 세계사의 주요 흐름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한 고전 중의 고전이다. 특히 세계사를 바라보는 네루의 인생관이 주입식 단답형이 아닌 거시적인 시각으로 쓰여져 있어 누구나 이해하기 쉽다. 그리고 서구 중심의 역사관을 거부하고 국왕 · 황제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과 소수민족을 옹호하는 네루의 따스한 인생관과 가치관이 담겨 있다.

《침묵의 세계》

막스 피카르트 씀◉까치글방 펴냄

어떤 의미에서 침묵은 현재, 과거, 미래를 하나로 만든다. 예를 들면, 사랑은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침묵에 의해서 흔히 드러난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때때로 베풀어지는 예감과 통찰력은 이러한 침묵의 초시간적인 성격과 바로 연결되어 있다. 의사이며 작가이기도 했던 독일인 막스 피카르트의 이 책은 사물과 침묵, 사랑과 침묵, 시간과 침묵, 죽음과 침묵 등 여러 주제로 나누어 침묵을 예찬한다. 이 책은 혼자 침묵하며 책읽기에 몰두하는 당신에게 이런 침묵이 얼마나 필요하며, 얼마나 중요한 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

《문익환 평전》

김형수 씀◉실천문학사 펴냄

신학자로서, 목회자로서, 시인으로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족통일의 꿈을 온몸으로 실천한 문익환은 우리 시대의 중심에서 불꽃 같은 생을 살았다. 시인이자 소설가인 저자는 방대한 자료와 대담, 현지답사를 통해 현대사의 질풍노도를 헤쳐온 문익환의 옹골찬 삶을 되살려냈고, 엄혹한 '겨울공화국'에 희망의 불씨를 심어놓은 그의 위대한 생애를 피와 살과 숨결이 느껴지는 문학적 문체 속에 오롯이 담아냈다. 한 인물과 더불어 그가 짊어진 시대의 사상, 철학, 역사가 어우러진 이 책은 한국 평전문학의 일획을 그은 역작이다.

《흰 그늘의 길 1, 2, 3》

김지하 씀◉학고재 펴냄

우리 시대의 거인 김지하 시인이 자신의 일생을 낱낱이 털어놓은 순도높은 회고록. 저자의 굴곡진 성장사가 뼈대를 이루는 가운데 주옥같은 시편들의 탄생배경과 숱한 사연을 맺은 인연에 대한 대목들이 특히 흥미롭다. 지금에야 마음 놓고 털어놓는 운동권의 비화와 음모, 배신이 얼룩진 인간관계 등을 읽다 보면 다큐멘터리의 박진감마저 느끼게 해준다. 김지하 시인다운 신명 넘치는 서술과 은근히 잠복한 위트와 유머 등은 연대기적 사실을 건조하게 나열하거나, 자기연민에 빠진 회고록과 다른 점을 확연히 느끼게 해줄 것이다.

《옛 그림읽기의 즐거움》

오주석 씀◉솔출판사 펴냄

저자는 그림 한 점을 놓고 화가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기분으로 누구를 생각하며 그린 것인지, 그 당시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인지를 곰곰이 추리해 나간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림 곳곳에 담겨 있는 여백과 필치 인물과 산수의 표정까지 모조리 훑어봄으로써 그림을 감상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그 아름다움에 깊이 공감하고 마음까지 총체험할 수 있도록 이끈다. 저자 특유의 사색을 담고 있는 이 수필에서 독자들은 단지 그림만이 아닌, 우리 전통 문화 전반을 읽어낼 수 있는 유용한 시각과 사고의 틀을 배우게 될 것이다.

《삼국유사》

일연 씀◉을유문화사 펴냄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앞세우며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의 서술태도를 비판한 승려 일연의 역사서 《삼국유사》. 우리 겨레의 가장 오래된 역사서이자 고대 문학의 보고인 《삼국유사》를 우리 시대의 독자들에 맞춰 번역한 책이다. 그동안 여러 번역본이 있었으나 지나치게 난해하고 고풍스런 문체 탓으로 쉽게 읽히지 않은 점들을 현대의 언어에 맞게 풀어썼다. 시원스런 내용전개, 신세대의 감각에 걸맞는 문장 등이 고전의 품격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우리 겨레의 훌륭한 문화유산을 알기 쉽게 접할 수 있게 해준다.